

사설

불확실한 무전공 제도 운영

2025학년도 개강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새로운 학기 시작에 동반하는 변화 중 무전공 신입생 입학에 눈이 많이 간다. 우리학교는 올해 약 600명의 무전공 학생을 선발했다. 전체 입학정원의 10% 규모다. 하지만 개강을 앞둔 지금도 무전공 신입생을 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범한 교육혁신연구위원회는 교과·비교과 커리큘럼과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개강을 앞둔 현재까지 세부 교육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는 24일 진행될 신입생 수강 신청부터 수강 로드맵을 짜야 하는 신입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는 교과·비교과 기본 틀만 공개된 상태다. 자유전공학부 행정실은 신입생 OT에서 교육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입생 OT는 개강 2주 전에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신입생이 수강 신청 등 스스로의 학사 일정을 설계하기엔 늦은 시점이다.

자유전공학부의 PBL 전공 개설 또한 안갯속이다. PBL 전공은 국제재학생이 전공 선택을 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 개설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기학과 쏠림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8월, 학교는 인기학과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강 신청 고도화를 고려한다고 했다. 수강 신청 고도화의 실현 방안으로 포인트제, 우선배정제 등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학사지원팀은 “세부 방안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즉,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매 학기 반복되는 수강 신청 문제로 학생들은 골머리를 앓는다. 최근 등록금 상승으로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수요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무전공 학생의 진입으로 기존 학과생 수강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수강 신청 문제의 해결은 필수다.

학교는 신입생 불안 해소와 수월한 신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교육과정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특히 신설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활성화해 신입생이 방향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과 프로그램인 명사 초청 특강과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전공 탐색의 기회가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다양한 전공 분야 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전공 선택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기 학과 인프라 개선도 시급하다. 순수학문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쏠림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학과 교수 채용과 시설 개선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무전공 선발 제도의 설립 취지인 ‘학문 탐색의 기회 보장’을 위해선 다양한 전공 체험과 학문적 지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완벽을 바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지원 제도의 정착으로 ‘학과 간 벽 허물기’라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융합형 인재 키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바란다.

세시봉

낙인찍기

조병연
choby0309@khu.ac.kr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자해를 벌인 일이 발생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동료 교사를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은 교사의 ‘정신 병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찍기’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 사건은 범인이 우울증을 앓았기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의 증상 중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심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또 질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중범죄율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이는 계획적인 이상동기범, 일명 ‘묻지마 범죄’로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져 왔던 이상 동기 범죄가 그렇듯이, 이 사건도 원인과 해결책을 뚜렷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를 쉽게 이해하려 한다. 편하기 때문이다. 사건과 관련한 일부 보도를 보면 ‘정신 질환’, ‘우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스 소비자는 복합적인 사건 배경·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우울증이 살인을 부추겼다’는 쉬운 논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신 건강의 상태가 단순히 교사의 ‘자격 검증’ 수단으로 직결되는 것은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보기 힘들다. 되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적으로 심각한 증상을 가진 자에겐 분리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증 우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도를 보며 흠칫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증상을 더욱 숨기고, 질환은 더 심각해져 추후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우울증은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질환이다. 이런 흐름에서 질환을 낙인찍는 방식의 보도와 분위기 형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 확대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만연한 증상 중 하나로, 눈치 보지 않고 즉시 치료가 가능한 병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열린 분위기 형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국제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건’의 위기

권도연

khudy94@khu.ac.kr



하고 있다. 그럼에도 줄폐업 상황에 놓인 정건 상권을 보면 그 지원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

상권 회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재산세·취득세 감면, 일정 기간 임대료 보조, 배달 업체 수수료 규제 마련 등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 입주율을 유도하거나 기존 상인의 가게 운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혜택이 필요하다.

동시에 외식 지원금 지급과 같이 소비 활성화 정책 역시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정건과 우리학교 학생은 상생 관계다. 정건 상가가 비어갈수록 학생 선택지는 더욱 줄어간다. 점심시간에 빠르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던 가게가 사라져 비교적 먼 영통 중심 상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왔다.

활기찬 대학가의 모습을 그리며 부푼 기대를 안고 입학한 새내기들은 정건의 텅 빈 거리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학생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건에 자주 방문하고, 상인은 그런 학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활기찬 대학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만평 정건의 줄폐업이 잇따르고 있어 학생은 갈 곳을 잃어가고 있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조병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